

독일 범죄예방 정책 및 체계 조사와 독일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사례 지역 답사

2018.7.15 - 7.20
독일(프랑크푸르트, 본, 베를린)

손동필 연구위원, 박유나 연구원

목 차

I. 출장개요	1
1. 출장 목적	1
2. 주요 업무수행	1
3. 주요 일정	4
II. 기관 방문 및 회의	5
1. 국립범죄예방센터 (Nationales Zentrum für Kriminal - prävention:NZK) -	5
2. 베를린 주 경찰서(Landeskriminalamt) 도시범죄예방 부서	9
III. 사례지 답사	13
1. Im Galluspark in Frankfurt	13
2. Mathildenplatz in Frankfurt	24
3. Tempelhofer Feld in Berlin	28
4. Park am Gleisdreieck in Berlin	33
5. Leopolodplatz in Berlin	38
6. Letteplatz in Berlin	43
IV. 출장성과 및 시사점 요약	50
V. 구득자료 목록	51

I.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1) 독일 범죄예방 정책 및 사례 조사

- 독일 연방내무부 소속 국립범죄예방센터를 방문하여 독일의 범죄예방관련 법령 체계 및 정책과 관련된 면담

(2) 독일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사례 지역 답사

- 독일의 CPTED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CPTED인 도시범죄예방의 현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조사
- 독일 CPTED 대상지 답사를 통해 CPTED적용 방식에 대한 사례 조사

2. 주요 업무수행

1) 독일 범죄예방정책 및 CPTED 관련 기관 방문

(1) 국립범죄예방센터(Nationales Zentrum für Kriminal - prävention : NZK) 방문 및 전문가 면담

- 일 시 : 2018년 07월 17일(화) 13:00 - 16:00
- 장 소 : Nationales Zentrum für Kriminal - prävention, Bonn, Germany
- 참 석 자 : 손동필 연구위원, 박유나 위촉연구원, Marcus Kober, Dr.Maria Walsh
- 주요내용 : 독일의 범죄예방 관련 법체계 및 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

(2) 베를린 주 경찰서(Landeskriminalamt) 도시범죄예방 담당자 면담

- 일 시 : 2018년 07월 18일(수) 10:00 - 13:00
- 장 소 : Landeskriminalamt LKA PräV1, Berlin, Germany
- 참 석 자 : 손동필 연구위원, 박유나 위촉연구원, Ingrid Hermannsdörfer, Sylke van Offern
- 주요내용 : 베를린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CPTED적용 방안 조사

2)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기법 적용 사례 지역 방문

(1) Galluspark residential area(Im Galluspark) in Frankfurt

- 답 사 일 : 2018년 7월 16일 (월)
- 주요내용 : Galluspark는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주거지역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소그룹을 결성하여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원인을 분석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 경비 및 경찰단속을 강화하고, 거주민 및 아동들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기계적 감시 기법보다는 주민들의 활동성을 증대시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함

(2) Mathildenplatzes residential area in Frankfurt

- 답 사 일 : 2018년 7월 16일 (월)
- 주요내용 : 마을 자체적으로 사회예방을 위해 지역방법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함

(3) Tempelhofer Feld in Berlin

- 답 사 일 : 2018년 7월 18일 (수)
- 주요내용 : 2008년에 공항을 폐쇄한 이 후, 활주로부분은 공원으로 활용하고 공항은 박물관, 경찰서 등으로 활용함. 활주로를 공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공원이용으로 시민들에 의해 여러 활동공간이 조성됨. 떠돌이 난민들이 일으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공원에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처를 마련함

(4) Park am Gleisdreieck in Berlin

- 답 사 일 : 2018년 7월 18일 (수)
- 주요내용 : 철도이용이 중단된 후,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범죄가 자주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CPTED원리를 적용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유도함

(5) Leopoldplatz in Berlin

- 답 사 일 : 2018년 7월 19일 (목)
- 주요내용 : 통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자들과 마약상들로 인해 범죄가 많이 일어나던 장소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이에 대응하여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CPTED원리를 적용하여 공원을 개선시킴.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자연적감시가 강화되면서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됨

(6) Letteplatz in Berlin

- 답 사 일 : 2018년 7월 19일 (목)
- 주요내용 : 독일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인 Social city 프로젝트의 하나로 주취자들이 활용하던 공원을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 중앙부에는 휴식공간,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함

3. 주요 일정

일 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 정
7월15일 (일)	13:05 -17:40	인천	프랑크 푸르트	출국
	17:40 -	프랑크푸르트		숙소이동
7월16일 (월)	10:00 -18:00	프랑크푸르트		[현장조사1] * Mathildenplatzes, Galluspark residential area
7월17일 (화)	08:00 -13:00	프랑크 푸르트	본	이동
	13:00 -16:00	본		[방문기관1] * Nationales Zentrum für Kriminal - prävention (NZK) (국립범죄예방센터)
	16:00 -	본	베를린	이동
7월18일 (수)	10:00 -13:00	베를린		[방문기관2] * 베를린 주 경찰서(Landeskriminalamt) 도시범죄예방 부서
	13:00 -18:00			[현장조사 2] * Tempelhofer Feld, Park am Gleisdreieck
7월19일 (목)	10:00 -13:00			[현장조사 3] * Leopoldplatz, Letteplatz
	19일 18:00	베를린	인천	귀국(대한항공, 1회경유)
7월20일 (금)	20일 15:00			

※ 원 일정에서는 베를린 답사지로 Mauer Park와 Neukolln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인터뷰 담당자(Ingrid Hermannsdorfer)의 추천으로 Tempehofer Feld, Park am Gleisdreieck, Letteplatz로 답사지가 변경되어 베를린 일정이 일부 조정됨

II. 기관 방문 및 회의

1. 국립범죄예방센터 (Nationales Zentrum für Kriminal - prävention:NZK)

1) 면담 개요

일 시 : 2018년 07월 17일(화) 13:00 - 16:00

장 소 : Nationales Zentrum für Kriminal - prävention

참 석 자 : 손동필 연구위원, 박유나 위촉연구원, Maria Walsh, Marcus Kober

2) 기관 개요

- 연방내무부 소속으로 총리 산하의 범죄예방관련 센터
 - 증거범죄학을 기반으로 성범죄, 극단주의 범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주요 면담 내용

(1) 국립범죄예방센터의 역할

- 교육학, 범죄학, 철학, 법학, 정치학 등을 전공한 박사들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결과를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범죄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연구(학교, 이슬람 범죄 등)를 진행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 독일의 법체계

- 연방국가라 주마다 정책 및 법체계가 상이하며, 독일도 범죄예방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은 없으나 건축법 내에서 CPTED 조항이 존재함
 - 건축법 조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안이 공식적으로 발표 된 후, 30일 동안 경찰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관련된 공식적인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해당 사항은 현재 의무는 아니며 주 혹은 시마다 다른 양상을 보임
 - ※ 경찰의 능력이나 해당 시와 주내에 전문가들이 수에 따라 의견제시 여부 및 내용이 달라짐
- 유럽 CPTED 표준을 추천하고 있으며 적용여부는 권장사항이 아니지만 의견제시나 심의 시 경찰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음

(3)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책

- 독일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경찰(내무부 소관)이, 처벌은 검사들이, 극단주의와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에서 관리함
-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책으로 나라차원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1)민주적 삶, 2)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 있으며, 이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서 주마다 다름
- 주마다 범죄예방 관련 프로그램과 재정적인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 범죄예방 단체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학교나 어린이 소아, 극단주의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수행하고 NGO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식적이지만 자유로운 형태임
 -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DFK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
 - 또는 한국의 순찰 개념인 지역방범과 관청, 경찰,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위원회 형성해서 학술적인 조언이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경우
-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DFK(독일범죄예방포럼재단), NZK(면담기관), 경찰조직에 의해서 수행함
 - 독일범죄예방포럼재단(Stiftung Deutsches Forum für Kriminalprävention : DFK)은 2001년 정부와 주들에 의해 시민권리공익재단으로 설립됨
 - ※ 절도예방, 청소년범죄, 증오범죄, 지역범죄예방, 집단범죄예방, 도시범죄예방(CPTED) 노인안전, 따돌림, 가정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된 예방업무를 수행함
 - ※ 범죄예방과 관련된 학술전문가, 유럽 내 다양한 국가, 그 외 범죄예방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유럽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식관리 및 실무적용을 수행함
 - ※ 특히, 발달지원(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폭력예방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교류 및 학술위원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함
 - ※ 이론에 기초하여 효과가 검증되었거나 추정도니 예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며,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 및 실행에 있어 주의사항에 대해 홍보함
- 국립범죄예방센터 (Nationales Zentrum für Kriminal - prävention:NZK)
 - ※ 내무부와 법무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시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조언함
- 경찰에서는 주 단위 혹은 국가단위에서 범죄예방관련사업을 수행함
 - ※ 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K-Einbruch 프로그램 수행

- * 연방내무부 장관의 주도로 독일 전역에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주 경찰이 주체가 되어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수행된 사업
- * 절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홍보와 교육을 수행함
- * 타겟 하드닝, 주거자들의 행동을 바꾸는 교육, 사회적인 부분(이웃간의 감시) 교육
- * 자신의 집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줌. 새집을 구매했을 경우, 경찰이 침입범죄예방과 관련된 조언을 해줌
- * 조언뿐만 아니라 방법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이 존재함

(4) 독일의 범죄 현황과 최근 추세

- 경찰에 등록된 범죄통계에 대해서 연간보고서를 발간 중이며, 전반적인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자면, 독일에서는 전체적으로 통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절도 20%, 강도 16% , 손괴, 사기, 폭력 각각 10% 정도임
- 최근 난민들의 유입이 잦아지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해 독일인과의 충돌이 잦고, 이와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나라에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난민유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음
 -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난민에 대해서는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의 가치관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음

(5)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

- 독일의 경우, 개인사생활보호가 심해 CCTV 설치에 굉장히 소극적임
 - ※ 베를린의 경우, 큰 행사가 열리 때만 CCTV를 작동시킴
 - ※ 공공공간에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 경찰에 설치가 필요함을 증명해야하고, 설치 이후에도 이 공간에 CCTV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함
- 오래된 역사나 공원의 경우, 조성시기에 조명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였기 때

문에 야간에는 어두움. 현재 이러한 공간에 대한 조명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발전함에 따라 Social City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도시범죄예방을 다루고 있음
 - Social city는 국가 및 주 별로 시행되고 있고, 재정보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
 - 도시재생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지역사회 참여도 촉진시키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는 60~80년대 조성된 지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Social city프로그램이나 건축물 개선을 통해서 도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 작년 베를린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대형차량돌진 테러 이후, 공간이나 도시를 계획할 때, 경찰들이 테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여함
 - 대형차량이 사람들이 많은 광장이라 건물 등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블라드나 가림막을 설치해둠.
 - 평소에는 시설물을 올려두지만 차량이 지나가야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시설물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6) 향후 국립범죄예방센터의 추진방향

-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서 자료를 구축하고 정책이나 실제적인 부분들을 비전문가들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지속하려함
 - meta-analysis를 통해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고 연구하려함
- CPTED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려함
 - 규제완화가 추세이고, CPTED는 복합적인 측면이 많아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도시차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



2. 베를린 주 경찰서(Landeskriminalamt) 도시범죄예방 부서

1) 면담 개요

일 시 : 2018년 07월 18일(수) 10:00 - 13:00
장 소 : LKA Prävention in Landeskriminalamt, LKA
참 석 자 : 손동필 연구위원, 박유나 위촉연구원, Ingrid Hermannsdörfer, Sylke van Offern

2) 기관 개요

- 베를린 주 범죄부(Landeskriminalamt, LKA)는 연방주 수사국으로 다른 국가 및 국제 조사 및 보안 당국과 범죄 퇴치에 관한 경험 및 정보 교환을 수행하며 수사위주의 업무를 담당함
- 총 5개의 수사부서와 3개의 지원부서가 존재하며 그 중 LKA Prävention 에서는 건축가를 고용해 대중교통 계획, 도시계획 시 범죄예방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그 외에도 폭력범죄, 침입범죄, 도난 범죄에 대한 상담 및 홍보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관 역할을 수행함.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전략적 개념을 개발하고 경찰 범죄 통계를 매년 수집함

3) 주요 면담 내용

(1) 베를린의 도시문제

- 베를린의 인구 변화
 - 노인, 장애인, 난민이 증가하면서 베를린 인구 특성도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해 건축이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정책을 수행함
 - ※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barrier free 건축이 많이 적용되고 있음
 - ※ 난민의 경우,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이 잦아서 계획과정에서 다양한 국적의 소유자들이 참여해서 일을 수행하고 있음
 - ※ 아무나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계획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함
 - ※ 현재, 도시에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처를 마련함

- 그리고 베를린으로 매년 5만명~6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이 많음
- 1,300만 규모의 관광객들이 매년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발생, 쓰레기 문제 등 도시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베를린의 도시환경적 문제
 - 공공공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피티가 합법적이라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함
 -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관소가 부족하고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절도가 만연함
 - 대중교통 라인을 따라 주차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많고, 이러한 공간들은 공공공간 주변에 위치해 있어 공공공간의 활용도가 낮음
 - 재정적인 지원이 적다보니 공공공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조명이나 보도가 깨지고 수목이 정비되지 않은 곳들이 많음
 - 테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아짐
 - ※ 유럽전역으로 테러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공공공간에 테러예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이와 관련해서 CPTED원리를 적용하여 테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독일에서 CPTED시작한 이유와 해당기관에서의 역할

- 도시범죄예방 관련해서 경찰관이 CPTED에 대한 시카고답사를 다녀온 이후, CPTE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부터 CPTED 사업을 시행함
 - 답사를 다녀온 경찰관들이 CPTED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건축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 경찰서에서 CPTED를 담당 하게 됨
- 경찰 혹은 지역사회가 CPTED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범죄 발생이유와 이에 대응한 CPTED 전략 적용방안에 대한 교육을 수행함
 - CPTED적용 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음

(3) 독일의 CPTED

-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구조와 정책들이 상이하며 조직의 구조에 따라 CPTED 수행 방식에 차이가 존재함

- 독일은 연방국가로 연방과 16개의 연방주들이 각각 독립적인 권한, 정책방향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CPTED 방향이나 정책이 상이함
- 범죄예방과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연방주들이 있는데, 범죄예방만을 위한 위원회 혹은 베를린처럼 범죄와 관련된 통합위원회가 존재함
- 독일의 경우, 범죄예방이 경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CPTED와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한 경우가 거의 없음
- 니더작센과 베를린에서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경찰서에 고용되어 CPTED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음

(4) 베를린 CPTED

- 베를린에서 도시범죄예방은 건물, 공적공간 및 준공적공간에 대한 의도적인 예방설계에 의한 방법활동으로 간주됨
 - ※ 다른 용도나 사용자 그룹간의 충돌을 예방하는 활동도 포함됨
 - ※ 공간 구조가 범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베를린 CPTED는 주관적인 안전과 객관적인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 ※ 객관적인 안전 : 가능한 범죄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어렵게 만들어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
 - ※ 주관적인 안전 :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공간디자인, 사회적 조치를 통한 안전감 강화(범죄불안감 감소)

(5) 베를린 CPTED에 있어서 베를린 경찰서의 역할

- Zentralstelle für Prävention – LKA PräV 1부서는 CPTED를 포함한 전략적인 예방,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기술적인 예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베를린 경찰 측면에서는 지역수준의 CPTED에 대한 책임감
 - 베를린 경찰 내 중앙예방부서 차원에서는 베를린 CPTED에 대한 책임감
 - 중앙예방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1)전략인 개념 개발, 2)CPTED에 대한 내·외부 홍보, 3)CPTED에 대한 내·외부 교육, 4)연구 및 시범 사업 수행, 5)독일 전역 공무원 CPTED 실무 그룹 운영
- 법에서 경찰의 임무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억압을 명시하고 있음
 - 1999년에 소개된 독일경찰 서비스 지침은 교통안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계획 과정에 참여하도록 명시함

- 계획 공무원, 계획가, 사회 기관, 상업 및 산업, 기타 관련 지역 활동가를 지원
 - ※ 해당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1)범죄 상황과 불법행위, 2) 새로운 범죄 현상과 범죄성향을 보이는 전략, 3)범죄를 유발하는 요소, 4)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요소, 5)다른 그룹 사람들의 안전 요구 내에서의 차이점
- 계획과정에서 경찰의 컨설팅이 의무는 아니지만 베를린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음
 - ※ 도시 및 토지이용 계획, 도시재개발, 계획경제, 새로운 건축과 수선 프로젝트, 특정 문제를 가진 공간, 일반적인 도시주제, 통합위원회 혹은 이사회, 범죄예방 관련 working group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컨설팅 수행
- 베를린 CPTED의 50%가 베를린 경찰에 의해서 수행됨
- 네트워크 형성은 부동산, 지역활동가, 예방위원회, 지역사회관리자, 사회 기관, 대중교통, 공무원, 기반시설 제공자, 관광, 상업 및 산업, 도시계획 및 건축가와 이루어 가고 있음

(6) 공공공간에서의 안전

- 공공공간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므로 이용집단의 특성 파악이 우선임
- 공공공간의 건물 외벽의 경우, 그래피티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물 외벽에 잔디를 심고 있음
- 주취자들의 경우, 공공공간에 모이지 못하도록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탁구대를 설치함
- 범죄예방환경 조성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려함



III. 사례지 답사

1. Galluspark residential area(Im Galluspark) in Frankfurt

답사일정 : 2018년 07월 16일(월)

장 소 : Im Galluspark in Frankfurt

1) 현장 개요

- Galluspark 일대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으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개선 시점인 2003년 당시 Galluspark 주거지역에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이들을 위한 여가활동공간이 부족하였음
 - 이럴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잦아 개선을 추진함
- 이에 지역소위원회를 조직하고 Galluspark지역 개선을 위한 현황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함
 - 세입자,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그 과정에서 경찰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
- 사설 경비 및 경찰단속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조성했으며, 주거지역의 영역성 및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전략들을 적용함
 - 기계적 감시 기법보다는 주거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활동성 강화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함
 - 사적공간에 대한 영역성을 강조하고, 개별 주호별 창문에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침입범죄에 대비함

2) CPTED 적용 사례

- 발코니를 활용해 주거단지 내부의 자연적 감시를 강화함
-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 벽을 두거나 쉽게 이동하는 것이 어렵도록 거리를 조정함 침입범죄를 예방함



발코니를 활용한 자연적 감시 강화

- 건물의 계단실의 창문은 내·외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전면채광창을 활용함



전면 채광창을 활용한 계단실

- 주차장의 입구의 창문은 철로 된 격자형 방범창살을 활용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함. 주거단지 입주자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는 주차장의 입구를 막아두고, 거주민 차량이 접근할 시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함



외부인 출입을 차단을 위한 주차장 창문에 방범창살 활용



외부인 출입을 차단할 위한 주차장 입구

- 우편배달원이 주택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우편물을 넣어둘 수 있도록 출입문 옆쪽에 우편함을 설치함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

- 창문의 경우 안 쪽에서 여는 방식을 적용하여 외부에서 창문으로의 침입이 어렵도록 함. 1층의 경우에는 안으로여는 창문뿐만 아니라 방범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있음



침입범죄방지를 위한 개별 방법

- 반지하층의 경우, 격자형 방범창살을 설치하여 침입을 막고 있음



방범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창문

- 1층 집의 경우, 창문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개인정원이나 울타리를 설치함



개인정원을 활용한 영역성 강화 및 접근통제

- 볼라드나 건물 외벽에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주거단지의 영역성을 강화함
각 주호별 발코니에 화분이나 정원을 조성해둌으로써 사적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함



영역성 강화를 위한 정원과 시설물 1



영역성 강화를 위한 정원과 시설물 1

- 주거지 내부에 자연감시가 용이한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터나 운동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이 활성화됨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 공간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 공간

- 야간에 주차자들이나 비행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이용을 막기 위해 출입문과 울타리를 설치함



울타리가 설치된 놀이터

2. Mathildenplatzes residential area in Frankfurt

답사일정 : 2018년 07월 16일(월)

장 소 : Mathildenplatz in Frankfurt

1) 현장 개요

- 마을 자체적으로 사회예방을 위한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하여 마을을 개선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거지역 내 덩불이 우거진 나대지를 개선
- 지역방법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의 공원을 개선을 통해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함

2) CPTED 원리 관련 내용

- 창문의 경우, 방법블라인드나 안쪽으로 열리는 방식을 적용하여 침입범죄에 대응하고 있음



방법블라인드를 설치한 사례 1



방범블라인드 및 방범창살(반지하)를 설치한 사례 2

- 주거지역 내에 자연감시가 원활한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함



자연감시가 용이한 공원



나대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활동공간 조성

- 외부인들의 주차장 진입을 막기 위해 평상시에는 철문으로 닫아두고 있음



철문을 활용한 주차장

- 반지하에 위치한 창문에는 격자형의 방범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마을의 진입 부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함
- 집집마다 창문에 화분을 둬으로써 사적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고 가로의 환경을 개선시킴



마을 영역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화분을 활용한 개별 주호 영역성 강화

3. Tempelhofer Feld in Berlin

답사일정 : 2018년 07월 18일(수)

장 소 : Tempelhofer Feld in Berlin

1) 현장 개요

- 1927년에 지어진 베를린 첫 번째 공항으로, 냉전기간 동안 서 베를린에 접근하는 미군의 주요 터미널로 활용된 곳임
- 독일 통일 이후에도 활용되다가 2008년에 폐쇄 이후 다양한 박람회 및 행사가 많이 개최됨
- 이후 정부는 해당 공원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빠르게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투표로 베를린 시민공원으로 유지됨
- 넓은 잔디밭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공원이용으로 다양한 활동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짐. 이를 통해 지역의 활동성을 강화하고, 공원의 자연적 감시를 증대시킴
- 난민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원에 난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처를 마련하고, 임시거주처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영역성을 확보함

2) CPTED 원리 관련 내용

-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오픈스페이스와 다양한 연령대의 공원이용으로 다양한 활동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짐



시야 확보가 용이한 공원

- 공원의 한쪽에는 난민들의 위한 임시거주처를 마련하고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
- 공항 활주로로 활용되던 공간의 한쪽에 난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처를 마련하고 임시주처의 영역성을 위해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함



난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처

- 공원의 한 쪽에 도시농장과 같이 작은 텃밭을 여러 개 마련해둠으로써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함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조성 사례 1

- 휴식할 수 있는 탁 트인 공원, 텃밭 이외에도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고 놀수 있는 서커스 장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을 유도함
- 쓰레기, 고철 등을 활용하여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거리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공원의 활동성을 높임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조성 사례 2

- 공원의 입구에 Tempelhof 공원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함
- 공원의 주요시설 및 입구에 대한 정보를 안내판에 표시함으로써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명료성을 강화함



안내판 설치를 통한 영역성 및 명료성 강화

4. Park am Gleisdreieck in Berlin

답사일정 : 2018년 07월 18일(수)

장 소 : Park am Gleisdreieck in Berlin

1) 현장 개요

- 베를린 포츠담광장 남쪽에 위치한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19세기 중반부터 물류영역의 중심으로 이용되던 이곳은 철도의 삼각 교차점으로 인해 고립된 환경으로 버려진 공간이었음
- 1994년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당공간에 대한 개선을 시작함
 - 폐철로를 활용하여 관광목적으로 관람열차를 운행하거나 다양한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사람들의 활동을 유도함

2) CPTED 원리 관련 내용

- 공원의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원의 이름을 표기하여 공원의 영역성 강화
- 자연적 감시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도와 공원 입구의 연결성 강화



공원 안내판



보행로와 연결된 공원입구



공원이름 명시

- 공원 내에 위치한 놀이터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함



울타리를 설치한 공원 내 놀이터

- 탁구대, 놀이터, 아이들 놀이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활동을 유도함



공원 내 놀이공간 1



공원 내 놀이공간 2



공원 내 휴게공간

- 공원의 잔디밭은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조성되었으며, 공원의 경계부나 놀이터, 탁구대 주변의 수목은 지하고 2m이상을 확보하여 자연감시가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함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잔디밭과 놀이터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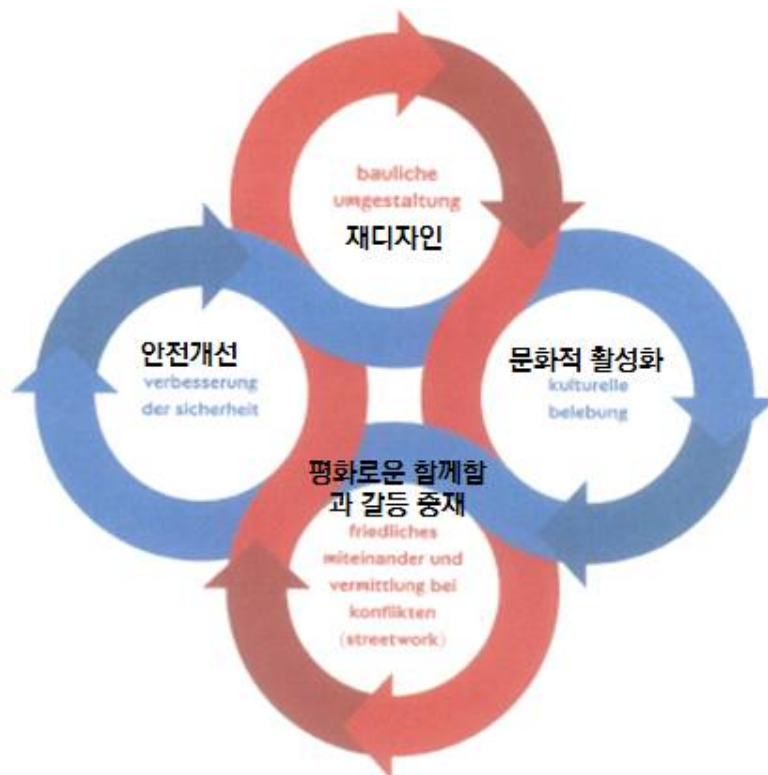
5. Leopoldplatz in Berlin wedding

답사일정 : 2018년 07월 19일(목)

장 소 : Leopoldplatz in Berlin wedding

1) 현장 개요

- Leopoldplatz는 지하철 6,9호선의 환승장소로 통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사용 및 거래, 주취자들로 인해 방치되다가 주변 상가쇠퇴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레오폴드 광장 개선을 추진함
- 시민, 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active city center프로그램과 문화재보호[Denkmalschutz] 프로그램의 도시개발지원금을 받아 밀려거리개선의 사업 목표 중 하나인 레오폴드 광장을 개선함
- “역사가 문화적 다양성을 만나다-모두를 위한 광장 함께 만들기”라는 모토아래 일년 반동안 시민참여과정을 거쳐 광장의 문제점 개선



레오폴드 광장 개선 컨셉
(출처: 베를린 경찰서 제공자료)

- 광장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활동성 강화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
-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약상과 주취자들의 이용은 자연스럽게 감소함

2) CPTED 원리 관련 내용

- 지하철 역과 연결된 광장의 입구에는 사람들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쉼터를 조성함
-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함



쉼터와 놀이공간이 조성된 광장

-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잔디밭을 조성하고 경계부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영역성 및 접근통제를 강화함



울타리가 설치된 놀이터

-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운동시설을 설치해줬으나 시야확보를 위한 주변 수목 정비가 필요함



수목정비가 필요한 운동시설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나 바람을 막는 용도로 설치한 벽은 사람들의 시야를 일부 가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내외부간의 시야가 일부 가려지는 휴식공간

- 화장실의 경우, 사람들의 시야가 확보된 공간에 설치해줬으며, 야간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사람들의 시야가 확보된 곳에 설치된 화장실

6. Letteplatz in Berlin

1) 현장 개요

답사일정 : 2018년 07월 19일(목)

장 소 : Letteplatz in Berlin

- 개선되기 전 Letteplatz는 우범지대로 사람들의 이용이 적었으나 독일의 도시 재생 프로그램인 Social city와의 연계를 통해 개선된 공원
- 그 전에 답사한 다른 공원들처럼 Letteplatz도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나누고 공간을 활용함

2) CPTED 적용 원리

- Letteplatz에도 베를린 다른 답사 대상지처럼 울타리 설치를 통한 영역성 및 접근통제를 강화함



영역성 및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울타리 설치 1



영역성 및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울타리 설치 2

- 공원의 입구에 공원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둌으로써 영역성 및 명료성을 강화함



공원 안내판 및 사업설명 게시판

- 활동성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및 공간을 조성함

※ 미끄럼틀, 축구장, 바닥낙서장, 탁구대, 쉼터 등



다양한 놀이 공간 조성 1



다양한 놀이 공간 조성 2



다양한 놀이 공간 조성 3



휴게 공간 조성



다양한 활동공간 조성(탁구장, 바닥낙서장)

IV. 출장성과 및 시사점 요약

- 개인사생활보호가 강한 국가로 CCTV를 설치하는 대신, 각 집마다 접근통제 및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예방 추진
 - 주거단지나 공공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 집마다 창문이나 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있음
 - 각 집마다 화분이나 정원을 조성해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에 대한 영역성을 분리하고, 침입범죄를 예방함
- 우리나라처럼 CPTED를 개별단위별로 접근하지 않고 CPTED를 설계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
 - 주거단지 계획에 있어서 자연적 감시가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하거나 공원의 경우 여러 공간이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눔
-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광장문화로 공공공간에 대해 CPTED원리 적용
 - 주거지에도 자연적 감시가 잘 되도록 공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함
 - 공공공간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고, 놀이터나 공원의 출입문과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영역성을 강화함
- CPTED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이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
 - 위원회 구성이 자연스럽고 토론문화가 발달하다보니 CPTED를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컨설팅을 주로 추진함
 - CPTED를 적용하는데 있어 경찰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전문가를 고용해 교육, 홍보, 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 사회문제와 함께 결합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정책을 시행함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ocial city(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범죄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함
 - 향후 한국의 CPTED도 단편적인 범죄해결이 아닌 도시차원에서 공간, 시설물 계획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려가 필요함

V. 구독자료 목록

- 국립범죄예방센터 (Nationales Zentrum für Kriminal - prävention:NZK)
 - 독일 범죄통계 보고서
 - K-Einbruch 프로그램 관련 자료
 - 범죄예방프로그램 관련 리플릿
- 베를린 주 경찰서(Landeskriminalamt) 도시범죄예방 부서
 - 베를린 경찰서 소개 책자
 - CPTED 적용 대상지 리플릿

